

# ‘호날두 노쇼’ 축구팬 손배소 승소

티켓값 7만원·수수료 1000원·위자료 30만원

“향후 경기 개최 승인 프로축구 연맹에 손배소”

지난해 ‘호날두 노쇼’ 사태로 피해를 주장한 축구팬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향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 등 2명의 법률 대리인 김민기 변호사는 4일 뉴스1과의 인터뷰 자리에서 “문화, 스포츠계에서 주최사의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것 사례 “라며 “이번 판결이 상징하는 바는 여러모로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주최사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 개최를 승인해 준 프로축구연맹 측에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발단이 된 형사고발 사건 수사는 진행 중이며, 300여 명기량의 축구팬들이 추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일정은 잡히지도 않았다”며 “이번 판결을 기

점으로 수사 및 소송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지법 민사 제51단독(재판장이재욱)은 4일 축구팬 A씨 등 2명이 친선경기 주최사인 쉐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청구액 중 티켓값 7만원, 취소환불수수료 1000원에 대해 위자료 100만원 중 30만원만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2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프로축구 K리그 울산타입과 이탈리아 명문 구단 유벤투스간 친선경기가 파행적으로 운영된 데 이어 ‘호날두 출전’ 까지 무산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입장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명목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해 7월26일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나너원 톱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다.

로 1인당 107만1000원(티켓값 7만원, 수수료 1000원, 위자료 100만원) 총 214만2000원이다.

A씨 등은 소장에 “주최사가 (입장권 판매 당시 호날두 출전을 광고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 허위·과장 광고로 입장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실제 당시 경기장에는 세계적인 선수인 호날두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축구팬 6만5000여 명이 관중석에 자리했다. 그러나 유벤투스 선수단은 예정 시간 보다 늦게 도착해 킥오프 예정시간 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이에 A씨 등 2명은 주최사에 1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차~4차에 걸쳐 축구팬들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소송인 단은 87명, 3차는 231명, 4차는 24명이다.

또 축구팬 및 시민단체는 호날두 노쇼 사태의 책임으로 축구협회 및 프로축구연맹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문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했다. 이어 시민단체 서민생태대책위원회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로빈장 데페스타 대표를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 ● 단신 ●

### 행패 후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 걸렸다” 피병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된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것 같다고 호소해 119구급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20대 남성 A씨를 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마포구 서교동의 한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 직원들에게 제지당하자 이들을 폭행하고 가게 내부의 집기를 집어던져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지구대로 연행된 뒤에도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던 A씨는 경찰관들이 반응이 없자 기침을 하고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며 도움을 요구했다.

A씨의 요구에 방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긴급 출동에 참여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119 구급대원들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아파다고 하며 고통을 호소해 119를 부른 만큼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호남고속도로서 갓길 서있던 화물차 추돌

4일 오후 2시 13분께 충남 계룡시 두마면 원대리 호남고속도로는 산방향 계룡부근 26.6km 지점에서 2.5톤 화물차가 정차해 있던 10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2.5톤 트럭 운전자 A씨(27)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10톤 화물차는 차량이 고장나 갓길에 서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계모가 의붓 아들·딸 폭행”...친모 신고로 수사

계모가 의붓아들과 의붓딸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3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계모 A씨가 의붓아들(12)과 의붓딸(10)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아이들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은 친모에게 A씨가 때린 사실을 알렸고 친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A씨를 소환해 신원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교도소 보내줘” 휘발유 끼얹고 경찰서 나타난 60대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경찰서에서 분신 소동을 일으킨 A씨(63)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운전기사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돼 북부경찰서를 찾아왔다.

당시 A씨는 “교도소를 보내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만한 일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설득에 경찰서에서 나간 A씨는 1시간30분 뒤 온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다시 나타났다.

A씨는 손에 라이터를 들고 “교도소에 보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2명을 위협했다.

A씨는 경찰서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1만원 어치 휘발유를 결제한 후 주유총을 이용, 직접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땀 내려 내려쓰지 마세요”...외과용 수술마스크 효과無

### 우한폐렴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되는 특성상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감염자의 침과 콧물 등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마스크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착용하는 얇은 외과 수술용 마스크도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KF94’ 또는 ‘KF80’ 표시가 있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한다. 일선 의사들은 환자가 KF94 등 해당 마스크



“마스크 쓰는데 중요”

되도록 KF80 이상 권장

착용 시 숨쉬기나 착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를 거친 후에 낮은 단계 제품을 착용할 것을 주문한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강하게 확산되는 현재 상황에선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들다. 마스크는 안쓰는 것보다 낫지만 기왕 쓸 바엔 가급적 KF80 이상이면 좋다.

박종혁 의사협회 이사는 “메르

스 때도 마스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가 있었고, 마스크를 내려 쓴 사람은 걸렸는데 제대로 쓴 사람은 안 걸린 경우가 있었다”며 “마스크 사용은 일단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필터가 없는 일반 마스크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으나 KF80 정도는 쓰는 게 좋겠다”는 게 현재 감염내과 선생님들이나 이쪽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깜빡했다면 가급적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간 밀착 접촉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이는 게 좋다. 감염이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이나 관계 기관은 마스크가 없는 경우 기침은 팔로 입을 가리고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박종혁 이사는 “일단 중요한

것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공인 같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마스크가 필요없는 만큼 상황에 따라 좀 구분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외과 수술용 마스크는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얇은 수술용 마스크는 외과의를 위한 제품으로 의사의 코와 입에서 나온 병원체가 수술장에 퍼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바이러스 감염을 막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전염병 전문가인 윌리엄 샤프너 밴더빌트 대학교 교수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중국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병원균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과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마스크는 바이러스와 관련해 많은 도움은 안된다”며 “이것은 바이러스성 입자를 차단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코와 뺨에 꼭 맞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1

- ⚙️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 ⚙️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

